



한국의 사례 ①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

## 파주시립도서관의 이야기 들려주기 모임

이인숙\*

우리 도서관은 지난 1994년 파주시립금촌도서관을 개관한 이래 문산도서관, 법원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을 운영하며 이동도서관, 군부대 대출확대, 도서관정보서비스현장 제정 등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운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하자면 이야기 교실을 뽑을 수 있다. 문산도서관에서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작한 “이야기 들려주기”(storytelling)는 1998년 처음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자는 소박한 뜻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맥이 어렵게 이어지다가 이야기의 중요성을 인식한 한 회원의 노력에 의해 역할이 점점 확대되었다. 그 후 도서관 프로그램 중 독서지도자 과정에 이야기를 통한 독서교육을 포함시켜 강좌를 수료한 대상을 중심으로 2000년에 금촌도서관 이야기회가 구성되었다.

매주 회원들이 모여 이야기를 발굴하고 함께

모여 토론하면서 자연스럽게 방학을 이용하여 매주 토요일 이야기 들려주기 봉사를 시작으로 현재 3년째 자생적으로 만든 금촌도서관 이야기회가 도서관이용 활성화와 친숙한 도서관 만들기 등 독서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 열악한 공공도서관 시설에 이야기 들려주기에 적합한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금촌도서관은 2001년에 예산을 반영하여 지하에 5평 정도의 이야기방을 만들어 2002년 5월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가 있는 공간도 마련하는 성과를 가졌다.

금촌이야기회(15명)나 문산 책고리 이야기회(8명) 역시 6-7세 어린이 및 회원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11:00~12:00에 어머니들이 순번을 정하여 아이들에게 구수한 이야기를 두 편을 준비하여 이야기를 들려주고 독후 활동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 그리기 등 변함없이 자원봉사를 실시

\* 파주시립금촌도서관 사서

해 오고 있다.

또한 작년에는 도서관내에서 한정된 인원을 갖고 봉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하는 별밤이야기 잔치”를 기획하여 (사진 참조) 가족과 함께 하는 도서관마당에서 옛이야기, 창작동화, 시낭송,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금촌, 문산, 법원도서관 3개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가정에서 책 읽기의 중요성과 도서관과의 연계된 활동을 알리는 뜻 깊은 자리도 마련하였다.



〈김형렬 선생님과 함께 동요부르기 (문산도서관)〉

이에 두 동아리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에 배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에 다시 환원하여 봉사함으로써 그동안 독서교육이 독후감 위주였던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조상들의 입담을 살린 옛이야기를 보급한다는 점과, 글자를 깨우



〈김은정선생님의 시낭송과 염승호 선생님의 오키리나 연주(금촌도서관)〉

치기 이전의 듣기 교육으로 독서교육의 보급을 인정받아 올해 경기도 여성학습동아리 육성사업 평가회에서 경기도 우수학습동아리로 선정되어 패와 상금도 받는 영광을 안았다.

현재 회원들은 일부 유치원에 나가 이야기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 소외된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이야기 봉사 및 올해 어린이날 및 독서의 달을 기념하여 연 2회 별밤이야기 잔치를 기획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21세기 꿈나무들의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도서관이용의 활성화, 어릴 적부터 자주적인 독서 및 학습태도를 길러주고 도서관을 보다 친숙하고 지역사회 문화 활용공간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변경된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연락처(직장명, 주소, 전화번호 등)가 바뀌시면

사무국으로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유태형 팀장)

전화 : (02)535-4868    전송 : (02)535-5616    e-mail : member@korla.or.kr